



전남대병원, 제16차 건강백세포럼 개최

전남대학교병원 한국백세연구단과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16차 건강백세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2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한국백세연구단 소장인 박광성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 및 광주광역시 북구 백세인 연구 조사 발표를 통해 건강한 노년과 백세인의 삶을 조명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와 농촌 백세인의 건강, 생활 습관, 정신 건강, 식사 질 등에 대한 논의로 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이부지 재활의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광주와 화순의 백세인은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높고, 광주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의료시설 이용과 치료율이 높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



광주당구연맹-㈜한밭, 당구 발전 업무협약

광주시당구연맹은 지난 17일 국내 대표 당구큐 제조업체인 ㈜한밭과 당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당구 대회 성공적인 개최와 선수 육성을 통해 당구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밭은 광주당구연맹이 개최하는 당구 대회에 한발큐를 공식 후원하고, 광주당구연맹이 지원하는 학생 당구선수들에게 훈련용품을 제공하는 등 훈련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권오철 한밭 대표는 "광주당구연맹과 함께 국내 당구문화 활성화와 선수 지원에 힘을 보태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박미정 시의원, '광주사회복지협 공로패' 수상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최근 광주 JS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4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성과 보고대회'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노인복지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사진)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 기관과 추진해온 사업 성과를 평가·공유하고, 수고와 헌신해온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기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박미정 의원은 시민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공로패 대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촘촘한 복지망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보해양조, 지역인재 장학금 4400만원 전달

주류 전문기업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지난 20일 목포시 대안동 본사에서 '2024년 보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지역 인재 35명에게 총 4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수여식에는 박철수 보해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선발된 장학생 35여명이 참석했다. 보해장학회는 전남도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 7개 기관으로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다. 선발분야는 체육, 문화, 과학, 교육 등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40년 동안 보해양조가 조성한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창해예탄을, 그리고 김인주 보해양조 감사의 기탁금 등으로 마련됐다.

박철수 보해장학회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장성신협, '나눔문화 확산' 1000만원 기부

장성신협(이사장 전정욱)은 최근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회장)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기부하며 나눔과 상생의 신협 이념을 실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전달된 사회공헌기금은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법인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신협 두손모아봉사단 지원, 온(溫)세상 나눔캠페인 등 지역 공헌사업에 활용되는 등 신협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성신협 전정욱 이사장은 "장성신협의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참여는 신협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신협의 기본정신에 따라 장성신협의 지역 기여를 강화하는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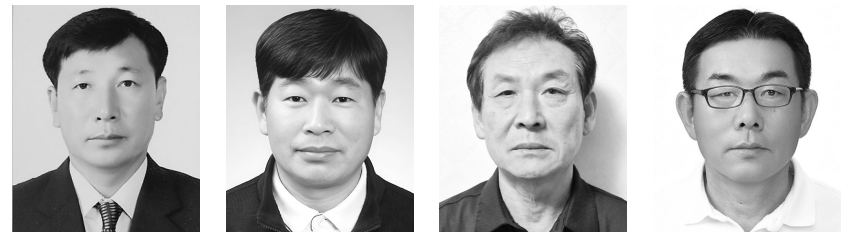
장성신협은 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어부바 원어민 영어교실부터 어부바 멘토링 사업,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 행복한집 프로젝트, 온세상 나눔 캠페인,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 ESG 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기아오토랜드 광주, 저소득층 아동 대상 '산타원정대' 기아오토랜드광주

는 지난 19일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이날 10시 기아오토랜드 광주에서 진행됐으며, 김희준 기아오토랜드 광주 경영지원실장은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기아오토랜드 광주 제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마이스터'에 전남 4명 선정



박건준 유희상 이진성 오재운

전국 31명 선정... 전남 4명

전남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업 분야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방식을 보유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전남에서 4명이 선정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업마이스터는 재배 품목의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 소양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교육·상담(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년마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농업마이스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올해 여섯 번째 지정시험에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 특용작물, 친환경 등 5개 분야 30개 품목에 총 248명이 응시해 전국에서 31명이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무안 박건준(조경수), 화순 유희상(한우), 영암 이진성(무화과), 고흥 오재운(시설채소) 농업인이 합격 영예를 안았다.

박건준 농업인은 조경수 재배·생산·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등 융복합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비 다양한 남부수종을 재배하면서, 숙근류 등 동남식물을 선정해 조경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희상 농업인은 한우의 생식체중(태어날 때 몸무게), 이유체중(젖을 떼 시기의 몸무게), 출하체중(가축을 출하할 수 있는 몸무게) 등 수기와 전산으로 기록하면서, 사료업체와 협업으로 임신우 진단을 통한 소의 건강한 체력, 맞춤형 사료 관리 등 맞춤형 개체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진성 농업인은 태양열과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해 비닐하우스에서 무화과를 재배한다. 겨울철에 무화과를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두바이 등 수출시장도 개척했다.

오재운 농업인은 시설오이를 재배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노하우와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고품질 오이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술능력을 인정받았다. 오지현 기자



광주도시공사, 2030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9일 광주 서구 빛고을고객센터 대회의실에서 'VISION 2030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광주도시공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포함한 공사의 미래전략체계를 발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새로운 미션으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머물고픈, 함께하고픈 미래도시 창조 공기업'을 선언하고 4대 핵심가치 '시민감동, 소통협력, 혁신성장, 투명공정'을 설정하여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또 4대 전략방향으로 △ 광주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누구나 행복한 주거복지 선도 △ 시민 감동을 위한 관리운영사업 고도화 △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제시하며, 공사가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노병하기자



광주기독병원, 성탄절 축하 칸타타 연주

광주기독병원이 성탄절을 맞이해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초청,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에 성탄칸타타 연주를 펼쳤다. (사진)

22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찬양대는 한 뿌리를 가진 기장양림교회(여성이중창), 통합양림교회(하늘빛중창단), 합동양림교회(The드림중창단)와 호남신학대학교가 참여했다. 또 직원과 가족, 환자와 보호자, 양림동 주민들과 교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환호와 박수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광주기독병원은 연주가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선물과 간식 등을 전달하고 행운권 추첨 등도 진행했다.

노병하기자